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사랑 제목 :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성경:아가서 2장10-17절

10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 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15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16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17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2:10-17)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사람들을 남겨 두셨을까?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사랑의 힘은 참으로 놀랍다.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사랑하는 자는 흔쾌히 일어나 함께 간다.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 무얼 하러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란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고 사랑하거나 무얼 하러 가는지를 꼭 확인하고 같이 같것인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꼭 그렇

진 않는다. 대부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 함께 간다.

옳고 그름도 사랑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 내가 사랑하면 그가 옳게 여겨진다. 내가 미워하면 그가 악하게 여겨진다.

11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을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 비가 올 때 무엇을 하면 가장 좋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좋다.

겨울이 아무리 매서워도 사랑은 능히 겨울을 이긴다. 비가 지겹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항상 겨울이 오고, 비도 온다. 그럴수록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모두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실수투성이다. 그래도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사랑에 상처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 사랑하지 않을 때 더 크게 상처를 입고,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랑의 상처는 사랑하면서 치유된다. 다른 방법은 찾지도 말아야 한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이 사랑했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대단히 큰 사랑이다. 심지어 짝사랑이라도 그것은 결코 무의미한 사랑이 아니다. (다만 짝사랑은 무례하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 무례했다면 그것은 사랑이기 이전에 이미 죄악이기 때문이다.)

12-14절은 사랑하기 좋은 조건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12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에서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한다. 그러나 순결하지 않는 사람

은 사랑할 자격도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더러워졌어도 사랑하려면 순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순결한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순결해지는 것이다. 또 사랑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사랑은 용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고, 이제 회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ut 남녀간의 구체적인 고백은 금물)

더러움을 간직한 채 사랑하는게 아니라, 더러움을 씻어내고 사랑하는 것이다.

13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 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풍요로움이 사랑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다. 가난한 자는 사랑도 하지 못하느냐고 따질 수 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불편한 것은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가난해서 헤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만 일하지 않아서 헤어지고, 계속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다. 한두번 불편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다.

사랑은 지키는 것인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없다면 사랑을 지속하기 어렵게 한다. 무화과나무는 식량이고, 포도나무는 즐거움이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제공되지 않으면 사랑은 지속되기 힘들다.

14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 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이름답구나

오직 나를 위한 네가 사랑의 조건이다.

사랑은 둘만의 은밀한 곳에서 한다.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모두를 위한 얼굴이 있고, 나만을 위한 얼굴이 있다. 모두를 위한 소리가 있고, 나만을 위한 소리가 있다.

이것이 사랑의 조건이다. 사랑은 은밀한 것이다. 사랑만큼은 은밀한 것이다. 은밀한 것이 공유되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15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가정을 파괴하는 요인을 말한다.

무엇이 가정을 파괴하는가? 세상에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이 많다. 가정은 지키지 않으면 허물어진다. 허물어지면 다시 쌓아야 한다.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많다.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한다. 악한 것들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은 가정을 허문다.

사랑을 더럽히고, 오해하게 하며, 정이 떨어지게 만든다.

사람은 사랑하면 사람답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 같다. 똑 같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답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는 악마처럼 행동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악으로 악을 이겼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랑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전도 제목: 그 빛을 보게 하라

말씀:누가복음11장29-36절

29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30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31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33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34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35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눅11:29-36)

그 빛을 보게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을 보게 하라는 뜻.

-선한 빛을 보게 하라는 뜻. 선이란 결국 유익이 되라는 뜻.

-부패를 방지하라는 뜻. 치유하고 보전하고 유지하라는 뜻.

요나의 표적 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표적을 많이 보이신 예수님께서서 표적 자체를 악한 의도로 해석하려는 자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심정을 나타내셨다.

유나의 표적과 같이 부활의 표적 이외에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빛을 비추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빛을 비추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깨닫게 될 자들을 위함이다. 빛을 비추면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뜻.

부활의 표적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나, 깨달을 자들은 깨닫게 된다.

그러나 시대가 약해져서 덜 깨닫게 될 것을 염려하셨다.

남방여왕이 일어나 심판한다는 말씀은 정말 시바여왕이 심판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리라는 의미 보다는 그가 겸손하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것을 기억하라는 뜻.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 그러니 시바여왕보다 더 큰 열정으로 이 진리를 갈망해야 한다는 뜻.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요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였다.

회개하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왜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요나의 부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복음의 빛이 있으니 이 빛을 전할 의무가 있다.